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용

복음으로 풍성한 진치를 위해 기도합시다!

2011년 제3차 청지기훈련

| 일시 | 2011년 10월 28일 금요일 저녁 7시

| 주제 |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마가복음 4:24)

| 강사 | 김성관 위임목사

| 대상 | 모든 성도



은 성도들의 말씀 잔치인 청지기훈련이 10월 28일 금요찬양집회 시에 있습니다. 청지기훈련은 일부 직분자들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를 위한 복음의 잔치입니다. 어른은 물론 이거나와 청년, 청소년,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복음의 정병으로 깨지고 다듬어지는 시간이 청지기훈련입니다(단후 2:21).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필요한 주님의 음성이지요. 수많은 소리들이 퍼지고 울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진실로 들어야 할 복음, 그 복음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골 1:9). 복음이 필요한 친지와 이웃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리십시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라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 14:23).

생명의 말씀(근초찬양집회)

그저 전형적이다 (예, 패턴, 모형, 예형)

예형론(Typology)은 구약과 신약을 성경적으로 다양한 예와 모형과 패턴으로 말해 주고 있다. 사물을 알고 이해하는 데 많이 쓰고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도 항상 사용되고 있다. 이는 새것이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배울 때에 사용한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나 경험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자 연과학 지식도 패러다임(paradigm)이라고 불리는 방법론 안에서 발견된다. 구약 자체 안에 내적인 예형론이 있다. 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예'로 제시된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길의 특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새로운 일이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나, 또는 위임이 임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이 사용된다(창 15:6; 신 18:15,18).

신약과 구약을 비교 설명할 때에 신약에서는 예형론이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서로 상통하는 점이 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 새 창조에 나오는 말씀은 서로 일치된다. 신약에서 구원의 복음의 시작으로 예수님의 탄생, 또 구약에서 이삭의 탄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태어남으로 보는 것도 병행한다(롬 4:18,23~24). 또한 예수의 희류심은 출애굽 사건과 연결된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얻은 새로운 위치를 비유로 설명한다(엡 2:11~13,20~22). 베드로 역시 같은 생각을 한다(벧전 2:9~10).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과 구약에 있는 여러 언약들 사이에도 유사한 점이 많다. 구약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래의 것을 말하려 할 때에 비슷한 것을 찾아 말했다(행 2:16~22).

구약과 신약 사이에 상통하는 점은 단지 비슷한 것만이 아니다. '역사 안

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남을 가리킨다. "구원의 역사"란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특정한 사건들을 통하여 그가 진히 역사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을 짧게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행동 역사와 성취, 또 다시 주시는 새 약속과 성취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놀라게 하실 수 있는 만유의 주시다(사 65:17~18). 그러므로 신약의 증인들이 증거한 예수와 또 예수께서 성취하신 행적들을 볼 때에 전형적인 하나님의 사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이미 완성하신 모든 것과 같다.

예형론은 단지 미리 나타내는 것이나 미리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 전에는 예형론이 구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내는 모습들을 찾아내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 형의 특징이 곧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때 구약을 오직 관념적으로만 보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신 모든 것의 가치를 축소시키고, 구약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모형을 예수님에 관한 미리 보여주는 어떤 형태로 해석을 애매하게 만든다.

예형론은 잘 사용된다면 그리스도와 신약 안에 그리스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과 경험을 구약의 역사적인 실체들을 패턴이나 모델로 비교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예수가 자신을 이러한 식으로 이해했음을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예형론은 구약 자체를 해석하는 방법론이 아니다. 왜냐하면 구약 자체에서 선별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신약은 성경 전체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쓰여졌고, 구약 중에서도 선별된 내용만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예형론은 구약에 비추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구약 전체의 의미를 아우르지 못하는 것이다. 아멘.

IT IS FINISHED!

When he had received the drink, Jesus said, "It is finished."

With that,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

(John 19:30)

A few days after Palm Sunday, the crowds that praised Jesus turned on Him and raised their voices to crucify Him. How fickle is the world's praise? I often wonder what their praise was for? The sound of "Hosanna" had hardly died down when their voices began to cry "Crucify Him". On the cross Jesus made seven different statements: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Lk. 23:34);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Lk. 23:43); "Dear woman, here is your son and Here is your mother"(Jn. 19:26~27);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Mk. 15:34); "I am thirsty"(Jn. 19:28); "It is finished"(Jn. 19:30); and lastly,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Lk. 23:46). Today's sermon is about Jesus' sixth statement. Out of all seven statements that Jesus made on the cross, what does His sixth statement, "It is finished," really mean?

"It is finished" are words of completion. So many great men and women leave this world with their task uncompleted. The pen drops from the writer's hand before the manuscript is finished. The painter's brush falls before the painting is done. Jesus Christ is the great finisher! He finished creation (Gen. 2:2). He finished making the new heaven and earth (Rev. 21:1~6), and He finished redemption. Where did he finish redemption? Jesus finished the work of redemption on the cross. Colossians 2:13~15 say, "When you were dead in your sins and in the uncircumcision of your sinful nature, God made you alive with Christ. He forgave us all our sins, having canceled the written code, with its regulations, that was against us and that stood opposed to us; He took it away, nailing it to the cross. And having disarmed the powers and authorities, He made a public spectacle of them, triumphing over them by the cross." Jesus finished all Old Testament sacrifices at the cross. His sacrifice was His own blood, offered once for all, and resulted in eternal redemption, "Then he said, 'Here I am, I have come to do your will.' He sets aside the first to establish the second. And by that will, we have been made holy through the sacrifice of the body of Jesus Christ once for all. Day after day every priest stands and performs his religious duties; again and again he offers the same sacrifices, which can never take away sins. But when this priest had offered for all time one sacrifice for sins, he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God. And where these have been forgiven, there is no longer any sacrifice for sin"(Heb. 10:9~12,18). 1 John 1:7 reminds us,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purifies us from all sin." Jesus paid it all!

"It is finished" are words of conquest. With a loud cry Jesus died, "And when Jesus had cried out again in a loud voice, he gave up his spirit"(Mt. 27:50); "With a loud cry, Jesus breathed his

last"(Mk. 15:37); "Jesus called out with a loud voice,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When he had said this, he breathed his last"(Lk. 23:46). Jesus did not call out with a sigh of defeat but with a cry of victory. It was loud enough for the devil to hear. Satan and all his demons were defeated at Calvary, "And having disarmed the powers and authorities, he made a public spectacle of them, triumphing over them by the cross"(Col. 2:15). The crowd called for Jesus to come down from the cross and save Himself, and Jesus had legions of angels standing ready for His call, but He stayed on the cross. He stayed on the cross to make His sixth statement, "It is finished"! We've had enough defeat in Christianity; we are equipped to win because we have a victorious Christ.

"It is finished" are words of comfort. Our debt of sin is really paid. If Christ hadn't taken the cross, then you would need to worry because your debt would be unpaid and you would have to go to hell. But Jesus paid it, and you don't have to go there. This one statement of Jesus reconciles all believers to God. Before we were enemies, but now we become God's children, "and through him to reconcile to himself all things, whether things on earth or things in heaven, by making peace through his blood, shed on the cross. Once you were alienated from God and were enemies in your minds because of your evil behavior. But now he has reconciled you by Christ's physical body through death to present you holy in his sight, without blemish and free from accusation"(Col. 1:20~22). There's only one thing that can bring a human being complete peace and that is reconciliation with God. This is absolutely a tremendous blessing. Do you realize the significance of the difference of belonging to God and not belonging to God? Understanding "It is finished" brings wonderful peace, "the mystery that has been kept hidden for ages and generations, but is now disclosed to the saints. To them God has chosen to make known among the Gentiles the glorious riches of this mystery, which is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Col. 1:26~27). The secret unknown in Old Testament times but known now only by divine revelation of the indwelling of Christ comes to believers because, and only because Jesus finished His work of redemption.

Can you imagine what it must have meant for the dying criminal who confessed Christ as Lord to hear Him say, "It is finished"? What peace this must have brought to his heart. Christ paid your debt too. Please trust in Christ and be saved! You can rest in His finished work on the cross. Does Jesus' sixth statement matter to you? Is it really finished in your life or do you still want more? Are you still going after your own success and wealth? Do you belong to Jesus or not? The criminal belonged to Him, and when I look at this criminal I know it was really finished for him. Amen. ■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30)



김성관 목사

중려주일 며칠 뒤, 예수님께 환호했던 군중은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송이 얼마나 번덕스럽습니까? 종종 그들이 이렇 거면 왜 그렇게 칭송했는지 궁금합니다. “호산나”의 소리가 미처 잠잠해지기도 전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일곱 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 “아버지 자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 23:34). (2)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눅 23:43). (3)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요 19:26, 27). (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15:34). (5) “내가 목마르다” (요 19:28). (6) “다 이루었다” (요 19:30). (7)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눅 23:46).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여섯 번째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총 일곱 번 말씀하신 것 중에 여섯 번째인 “다 이루었다”에 담긴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취의 말씀

“다 이루었다”는 성취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위인들이 자신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죽습니다. 펜은 원고를 끝내기도 전에 작가의 손에서 떨어집니다. 화가의 붓도 그림을 완성하기 전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완성자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창조를 이루셨고(창 2:2), 새 하늘과 땅을 완성(제 21:1~6)하셨으며 인류 구속까지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국을 성취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13~15은 말씀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켜 우리를 거스로로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희생제를 끝내셨습니다. 그의 희생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린 단번의 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오직 같은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히 10:9~12, 18). 요한일서 1:7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함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승리의 말씀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말씀입니다. 크게 울부짖으며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마 27:50).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막 15:37).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눅 23:46).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패배의 탄식이 아닌 승리의 탄성이었습니다. 이는 사탄에게도 들릴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사탄과 모든 악한 영들은 갈보리에서 패배했던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골 2:15). 무리는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원하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자신의 부름에 응할 천사의 군대가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여섯 번째 말씀을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기독교에 이제 더 이상의 패배는 없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화복의 말씀

“다 이루었다”는 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 값은 완벽하게 지불되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자기 죄 값을 치르지 못해 반드시 지옥에 가야만 하기에 걱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 값을 치르셨기에 여러분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한 마디는 모든 신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원수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골 1:20~22). 인간에게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 줄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은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이해할 때 놀라운 평화가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골 1:26~27). 구약 때는 감추어졌으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통한 신적 계시로 알게 된 비밀이 오직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으로 신자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죽어간 강도가 주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였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 얼마나 놀라운 평화가 깃들었을까요. 그리스도도는 여러분의 빛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제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심시오! 여러분은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이루신 사역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섯 번째 말씀이 여러분에게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무언가를 더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성공과 부를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것이 맞습니까? 그 강도는 주님께 속해 있었습니까. 강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그를 위해 다 이루셨음을 알게 됩니다. 아멘. ▮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 중에 부르짖으셨다. “내가 목마르다”(요 19:28).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구주이시다. 그런데 구주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다른 죄수처럼 고통 속에 신음하며 갈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목마른 구주!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 역설적인 상황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자.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님이 아닌, 온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었다. 그는 12살이 되었을 때 여느 유대인처럼 절기의 관례를 따라 성전에 가서야 했다(눅 2:42). 이와 같이 예수님은 평범한 유대인으로서 30여 년간 살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공생애 중에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셨다. 오랫동안 걸었을 때 예수님은 몹시 피곤해 하셨다(요 4:6). 이것은 이사와 선지자가 기술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정반대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멸절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늙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줄을 것이요 달음질할 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사 40:28-31). 이처럼 하나님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바로, 우리의 죄

를 속량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배고픔(마 4:1-2), 피곤함(마 4:38), 슬픔(요 11:34-35), 고통(마 27:34)을 모두 다 당하셨다.

● 인간이 느끼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님은 인간이 느끼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신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라는 외마디를 던질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다. 지옥의 한 단면을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친히 말씀하셨다(눅 16:23-24). 지옥은 세상의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곳이다(사 66:24; 막 9:48-49).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기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지옥을 아름답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영원토록 고통이 있는 참혹한 곳이다. 예수님은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막 9:47)고 경고하셨다. 지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경험하고 계신 것이다.

● 성경을 옹하시려 하심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지옥의 고통을 호소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 하나님인 예수님이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순전히 원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시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아버지의 말씀, 즉 성경을 성취하는 데 있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십자가에 달려 목 밖에 죽어가 는 순간에도 오직 성경을 옹하도록 순종하셨을 뿐이다(사 69:21; 사 50:6). 우리가 긴장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도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마 26:64; 단 7:13).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히 5:7).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목말라하셨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목말라하는가?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 내가 가지 있다고 믿는 신앙의 것들로 인해서 목말라한다면 회개해야 한다.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나의 신앙을 고집하며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쓰는 만큼 지옥의 불로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부인하여, 성경을 옹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목마른 자는 바로 우리다. 목마른 구주께로 나아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마시라.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아멘.

메시아의 죽음 93

칼 가진 자를 향하신 반응

(요한복음)

나 하시니라”(요 18:11).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칼 가진 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은 그의 이름을 밝혔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매우 중요한 질문을 기록하였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에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칼 가진 자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함축되어 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기술하였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과정에 대해 기술할 때에도, 예수님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아가셨음을 밝혔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요 18:4). 또한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내가 그니라”(요 18:5)고 하셨고, 자신만 잡아가고 다른 제자들은 놓아줄 것도 요청하셨다(요 18:8). 그럼에도 베드로는 자신만의 충성과 열정을 가지고 나섰으며, 기껏 한다는 행동이 아무런 힘도 없는 종의 귀를 잘랐던 것이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기결은 초대교회 지도자 시절에도 드러났다(행 10:9-16). 이처럼 칼 가진 베드로의 문제는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을 마시지 못하도록 막았다 데 있다.

예수님은 겻새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드린 기

도의 핵심 내용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에 대한 것이었다(마 26:39; 막 14:36; 눅 22:42). 이 잔은 오직 하나님만이 친히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 있으며 감당해야 할 잔이었다. 그런데 이 잔을 마시지 못하도록 베드로가 막아선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닌, 베드로 자신의 뜻이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때 까지 오신 것이다. 너무 늦고 결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을 뿐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요 12:27, cf. 막 14:35).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에 더 나아가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하나님을 뵈었다(요 10:30, cf. 요 16-17장).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셨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만의 것들을 가지고 막아 선 것처럼, 우리도 비슷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유하게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왜 그런가?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항상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다(요 11:41-42).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요 10:17-18). 따라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잔을 피하실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곧 자신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이상 칼을 들고 예수님을 막아서 말자. 칼을 들고 설치는 나의 충성과 열정이 매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이다.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십자가 하나님을 충분하다. “나를 깨뜨려 가루로 만드소서, 험한 십자가 붙들게 하소서.” 아멘.

*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회(새벽 4:00시)에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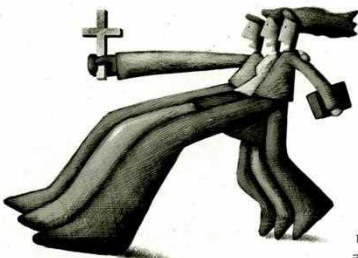
자기 부인, 복음의 씨앗

처음 가는 선교인 만큼 준비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출발하려니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주님께서서는 출발하는 주일 성찬식을 통해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셨다. 성찬식에서 힘을 얻어 도착한 선교지는 예수님을 모르지만 평화로운 곳이었다고 사람들이 전했다. 지역을 나누어 가가호호 방문하고, 인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어떤 분은 복음을 소개받은 뒤 집안으로 초대하여 가 보니 정신질환을 가진 남자 아이가 누워 있었다. 그 아이는 평생 이 작은 방에 갇혀 살아야 될 것 같았다. 너무나 안타까웠다. 주님께 아이의 치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가난한 마을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물러나고 온 마을 사람을 앞에 놓고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

다음 날은 언덕을 오르며 축조전도를 하는데 모두 반응이 좋지 않아 그만하려고 했으나 더 가보자는 어느 집사님의 의견에 따라 가 보니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피곤은 사라지고 심령에 기쁨이 가득했다. 불교가 강한 마을 안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는 가정을 방문해 보니 성경과 예수님 사진을 내보이며 어린 아이처럼 우리를 기쁘게 맞았다. 마을의 불교도들이 우리를 물려내려고 하였던 때는 사람들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던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마음의 고통이었다. 내가 불청객임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복음 들고 들어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었다. 주님의 은혜로 복음의 씨앗을 그렇게 뿌릴 수 있었다. 이제 씨가 나고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홍순영(성도, 20교구)

나는 일본인이 아닌, 복음 증거자였다



비가 내리는 새벽 4시 우리 팀은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50여 명의 기도 동역자들이 우산을 받쳐주고 차를 돌려싸고 기도 하였습니다. 그 순간 선교는 '기도의 힘으로 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팀 훈련 기간 동안 3번이나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가고 싶지 않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팀과 선교위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선교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나서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주님의 은혜로 담담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느껴졌고, 그 장면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것은 분명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결코 지금의 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의 의지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선교를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선교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시 45도의 뜨거운 열기 아래 우리 8명의 팀원들은 땀을 흘리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적을 전했습니다. 이적이 올 때까지 나는 무엇이 두려웠고 무엇이 불안하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슬람교 마을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적을 외쳤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가능했습니다. 한국어 학교에서 60명이 넘는 젊은이들과 함께 웃으며 찬양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집에서 수화통역자의 도움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집사님이 젊은이들과 손을 붙잡고 웃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에 배, 호텔의 종업원과 기사에게도 전도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은혜의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했고, 자기를 부인하고 모두 내려놓았더라면 좀 더 은혜의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연약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가족위원회에서 처음 가는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인으로서 이처럼 한국 땅에서 선교를 가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처럼 복음은 정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차별이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죄인에게도 복음을 주심에 감사하며,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구지(성도, 새가족양육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요!

미얀마 (MYANMAR)



위치: 동남아시아와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

수도: 네피도(Naypyidaw) 기후: 열대 계절풍 기후

종교: 불교(89%), 침례교(3%), 가톨릭(1%)

언어: 미얀마어(몬글족 10%)

1. 선교 정보

• 정식 명칭은 미얀마연방공화국(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이다. 소수 볼로족으로부터 출생부터 사망까지 불교가 미얀마인의 사상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다.



- 불교 이외에도 미얀마인은 '나트(NAT)'이라는 정령신(토속 신앙)을 섬긴다. '나트'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들이고, 공식적으로 37개의 '나트'를 공인하고 있으며 이외에 각 가정과 지방에서 섬기는 고유의 '나트'도 있다.
- 미얀마는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외외민주주의를 도입했으나 1962년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섰고, 현재도 군부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 선교 현황 상황

-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 미얀마에 선교 신경을 많이 모아 한 팀도 파송하지 못 했다.



3. 기도 제목

- 공산정권하에서 선교의 자유가 없는 미얀마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복음 증거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할 단기선교팀이 만들어지게 하소서.
- 미얀마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소서.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간	팀	팀장
10월 13일(목) - 10월 21일(금)	22교구 3팀	강영자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간	팀	팀장
9월 27일(화) - 10월 5일(수)	23교구 3팀	한홍연

고등부

복음으로 감사했던 '코밤'



북지관 지하2층 코이노니아의 발모르는 길



선종이와 함께 하는 동화 시간, 선종이와 함께 하는 동화 시간, 선종이와 함께 하는 동화 시간



예쁜 찬양대의 특송 순서



실제 복지관 배우원 학생들이 함께 한 합동 무대, 뮤지컬 형식으로 찬양하고 말문을 남겼었다

그리고 '총동원 전도주일'



학생들이 주최하는 중간중간 있는 어린이, 아이들이 코밤에 참여하면서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프로그램



각 학년 교과별 찬양과 공예, 특송 등을 하는 모습



총동원 전도주일의 특송 순서



총동원 전도주일의 새만두 찬양 시간

지난 9월 24일 복지관 지하2층에서 코밤(코이노니아의 밤)이 열렸다.

코이노니아의 밤은 '친교의 밤'이라는 뜻으로, 고등부 전체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서로 마음을 모아서 꿈트나 성경, 위생, 뮤지컬 형식으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찬양을 드렸다.

또한 바로 다음 날, 기존에 다니던 학생들은 물론 새친구를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던 총동원 전도주일에는 코밤의 열매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Q.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와서 어떤지?

A. 친구가 고등부 총동원 전도주일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교회에 안 들어도 다닌 적이 없었는데 친구가 가자고 하는 말에 나오게 되었어요. 집에 서 상당한 거리가 있던 애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행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은 거 같아요. 새친구 유복희



Q. 친구를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 데리고 온 소감은?

A. 총동원 전도주일이라고, 단순히 친구 데려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가고 했어요. 근데 친구가 잘 나와주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자주 데리고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집이 멀어서 임들 수도 있지만 앞으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인도자 김한나

취재·노화은, 김성혜 기자

Still, 여전히

도마, 그는 의심 많고 확신 없는 자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다두모(삼동이)라고도 불린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성경 속 도마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나는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뭐야. 어떻게 제자라는 자가 이렇게 믿음이 없지?' 하지만 다시 말씀을 읽으며 나는 더 이상 도마를 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에게서 나와 쌍둥이 같이 달은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늘어나는 것은 주름살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계산으로 가득 찬 확신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항상 주님께 기도드리며 말긴다고는 했지만 그것은 늘 말뿐이었습니다. 그 순종을 위장한 기도 속에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음, 즉 불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정말 믿기는 한가요? 주님의 뜻이신 한가요? 그렇다면 좀 더 정확히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 게요"라는 기도는 내 삶 속에서 항상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는 내게 주님은 항상 응답해 주셨지만 나는 여전히 발을 내딛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을 없음에서 기인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혹시라도'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에 의한 두려움.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고 믿겠노라 말했습니다(요 20:25). 나도 그랬습니다. 직접 보여주신 정말 믿겠노라.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주님"이라 고백했던 도마와는 달리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며 여전히 '내 뜻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나는 용기 없는 자, 비참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주 되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를 주님은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나도 도마처럼 돌이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기 원합니다. 의심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잘하는 것이라고는 여전히 죄는 것뿐인 나이지만 예수의 보혈 의지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만나 꼭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주님께 사랑받을 때 되고 싶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고 그 소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 20:27) 말씀하신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온 담 때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을 따라,

한영애(집사, 청년1부)

그들을 위한 기도는 계속될 것이다

9월에 있을 교구 총동원 집회를 위한 준비모임이 8월 21일 주일부터 있었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손님이 없으면 그 잔치는 의미가 없기에 영혼을 두루 살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교구 식구들이 인도했던 새가족을 파악, 인도와 현재 속성 여부 등을 파악하여 영서를 띄우고 타 교구 성도들이 전도한 우리 교구 해당 새성도에게 전도와 함께 영서로 그들을 초청했다. 친구들과 그 부인, 또 사무실 근처에 근무하는 거처까지 직원, 친인척 등 각 부문에 걸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초청했다. 친구들은 관심은 보였지만 늘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던 참이었는데 뜻밖에도 용인에 사는 친구가 그날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하면서 다른 친구도 오노라고 물었다. 나는 그 즉시 관교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하여 용인 친구가 교회에서 보고 싶다고 하니 나와 달라고 했다. 그리고 가끔씩 부인을 동반하라고 했다. 그 부인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 잘 다니다가 시댁이 짙게 다니는 바람에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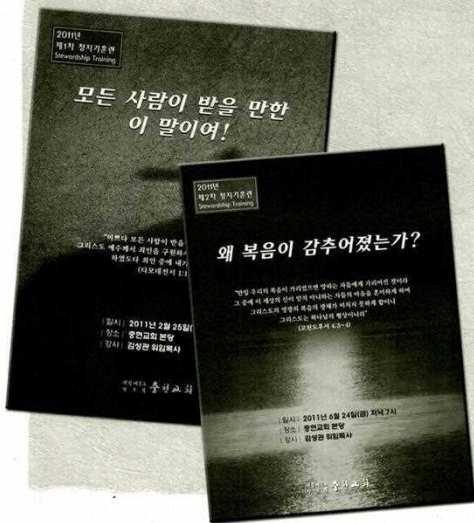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그 부부가 다시 교회로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조마조마했지만 그 부부는 함께 당일 행사에 나타나고 우리는 행사 이후에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이제부터 교회에 정착하기를 권면했다. 특히 혼자 나온 친구는 예배가 무슨 요일에 있으며 어떻게 하면 참석할 수 있는냐고 물었다. 그래서 금요찬양집회를 소개하면서 회사에서 바로 올 수 있고 지루하지 않고 찬양이 많이 오라고 권면했다. 또 회사 부근의 다른 직원도 청지기훈련 때나 기타 행사에 초청하려고 특별히 살펴본 차에 추석 때 조그만 선물과 함께 초청장을 내달렸는데 흔쾌히 그 약속을 했다. 또 차체의 딸과 우리 8지역 새신자인 권사님의 한 아들에게 오기를 권면했더니 두 아들을 다 데리고 나왔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오기를 바라는 나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감사드렸다. 이제 친구들과 새로 나온 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자녀가 다 되기를 소망한다. 그들을 위한 기도는 계속될 것이다.

김종훈(인수집사, 14교구)

2011년 청지기훈련

리뷰 Review

2011년도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확실하게 전해 주셨다. 특히,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실로 대단했다. 이제 제3차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주심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지난 청지기훈련의 말씀을 되새겨 보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은 참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높이 높이 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에 사자에게 아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였던 것들을 우리의 손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끌어버린 죄인입니다. 인생의 황혼 길에서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을 자랑하였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길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을 보게 하시고 회개의 길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

주여! 나의 믿음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기보다는 나만을 위한 투쟁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통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었겠는가! '내 언약은 내가 내린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아사와 세우리라'(창 17:21).

김성만 위임목사

제1차 청지기훈련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디모데전서 1:15) 삶이 복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복음은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다(고전 2:1~2, 1:18).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 16:30~31)이며, 이 복음이 디모데전서 1:15에 모두 있다.

1. **죄인** 죄인은 곧 우리대를 39~10; 사 53:6. 지금 주님은 죄인을 향한 영원한 사랑의 음성을 외치고 계신다.
2.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 예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다고 3:17~19). 구원받은 증거는 죄인을 구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3.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이름은 죄인이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시(눅 1:31~33). 모든 만물의 창조주께서 죄인을 구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히 12~3).
4. **그의 행하심** 예수님은 이 세상이 있기 전 태초에 이미 존재하셨다고 1:1~4, 10~11, 14).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마지막 사역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는 것이었다(눅 23:44~47).
5. **영접** 주님 앞에 먼저 죄인임을 고백한 후 따르는 것이 겸손이다(고전 15:31).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은 자는 자신이 죄인 중에 과수원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엡 3:17~19). 아멘.

제2차 청지기훈련 '왜 복음이 감추어졌는가?' (고린도후서 4:3~4)

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눅 12:67). 우리의 초점은 죄 사함을 위하여 속죄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맞추어져야 한다.

1.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감추어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자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전 2:5). 복음이 가리어진 이유는 복음이 불투명하고 모호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딤후 1:15~16; 요 3:36).
2. **복음이 가리어진 자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복음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망한 자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된다(눅 10:9~11).
3. **복음이 가리어진 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신은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린다(고 2:14). 두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눅 3:9~12).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한 분, 예수의 이름뿐이다(골 3:22~24). 아멘.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원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2850	여창성		교역자	
2851	박희정		1	
2852	어수현	유치부	1	
2853	어수민	영아부	1	
2854	임 혁	양육반	4	이정미
2855	황영송	양육반	5	이희자
2856	최정순	양육반	2	김경숙B
2857	정수민	고등부	5	임현지
2858	백문옥	양육반	17	백문월
2859	김남희	양육반	7	백예옥
2860	신우익	양육반	20	이영순
2861	김시은	양육반	16	최현구
2862	한순옥	양육반	8	최미자
2863	김홍래	양육반	1	전혜숙
2864	박소영	청년1부	10	
2865	박진희	양육반	17	박용순

